

전남광주시, ‘유사·중복’ 공공기관 22곳 → 11곳 통합 속도

기관 41곳 중 22곳 통합대상 지정
기관 간 자율 협의로 갈등 최소화
연내 정비 마쳐 내년 초 출범 계획
조직 체계, 보수·복지 등 진통 예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22곳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개 기관이 자율 협의로 통합 방식을 합의한 가운데, 일부 기관은 이견 조율과 후속 정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한 22곳을 통합 대상 기관으로 정했다. 이들 통합 대상기관은 1대1 통합을 통해 11개 분야별 각 통합 기관 1곳으로 재편한다.

추진 방식은 당초 검토한 조직 진단이 아닌 기관 간 자율 협의다.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 대상인 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70일을 맞은 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의 모습. /뉴스시스

기관과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에서의 기관 간 자율 협의로 통합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시는 통합 5대 원칙으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고용 승계, 불이익 방지, 신속 통합, 기관 주도 자율·책임 통합 등을 제시했다.

11개 통합 대상 분야 중 8개 분야, 즉 16개 공공기관은 서로 통합 방식에 합의했다.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분야는 ▲개발(광주도시-전남개발공사) ▲관광 진흥(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시정연구(광주-전남연구원) ▲정보문화산업

진흥(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광주-전남신보재단) ▲중소기업 및 노사관계 지원(광주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진흥원) ▲문화사업(광주-전남문화재단) ▲평생교육 진흥(광주-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남은 분야도 접점을 찾아 조레안 초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기관부터 시의회 심의 등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임원 선임과 정관 정비를 마쳐 내년 초 통합 공공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레 제정 이후에도 각기 다른 조직·직급 체계와 보수·복지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 광주관광공사 출범 당시 내홍을 겪으며 정관 마련에 2년이 소요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의 세심한 후속 관리와 지원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사천시

에어쇼·항공우주 전시 즐겨요

경남 사천시가 ‘사천에어쇼’ 기간인 22일부터 25일까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을 무료 개방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무료 개방은 에어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항공우주 전시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관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권 발권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 가상현실(VR) 체험과 4D 영상관 등 일부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산청군

대원사 계곡길 연장구간 개통

산청군은 16일 삼장면 유평마을(삼거리마을)에서 대원사계곡길 연장구간 개통식을 열고 탐방객 맞이에 들어갔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3.5km 탐방로에 1.5km가 더해져 대원사계곡길은 총 5.0km로 늘었다. 군은 자연 친화형 데크로드와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함께 확충했다.

개통식에는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경남도·산청군의원, 지리산 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대원사 주지스님, 지역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신규 탐방로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인천시

GTX-B 추가정거장 심사 통과

인천시가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중간인 청학사거리 일원에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다.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봉화군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 열어

베트남 지방정부가 리 왕조 이용상 왕자의 고려 정착 800주년을 기념해 왕조를 상징하는 용 조각상을 경북 봉화군에 기증했다.

봉화군은 지난 17일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이용상 왕자 한국 정착 800주년 기념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 박닌시가 직접 제작해 봉화군에 기증한 리 왕조 양식의 용 조각상은 800년 전 시작된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오늘날의 문화교류로 이어가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봉화(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고양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도전

한강하구 자리한 장항습지 품고 신청도시 평가서 국내 후보도시 선정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품은 고양시가 국제적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고양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제4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도시 평가’에서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국내 후보도시로 이름을 올린 곳은 고양시와 경남 고성군, 경북 영양군 등 3곳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국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다.

고양시가 국제인증에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은 장항습지다. 한강하구에 자리한 장항습지는 약 5.95㎢ 규모로, 한강에서 내려오는 담수와 서해의 조석에 만나는 독특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양시 장항습지 전경.

습지 곳곳에는 버드나무 군락과 갯골,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형성돼 있다. 재두루미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며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주시, 호남에 특산물 ‘인삼·홍삼’ 알려

‘영호남 문화대축전’ 참가

경북 영주의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이 영호남을 잇는 문화교류의 장에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고, 영주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현장 중심의 판촉 활동이 펼쳐졌다.

영주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참가해 풍기인삼과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영주지역 업체인 일품인삼사가 참여해 인삼과 홍삼 제품을 선보이며 호남지역 소비자들에게 영주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영주시 판매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인삼과 홍삼 제품을 직



광주광역시 쌍암공원에서 열린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마련된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부스에서 방문객들이 풍기인삼과 홍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접 살펴보고 시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별 특징과 품질을 설명하는 홍보판 매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주 농특산물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호남지역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청양군,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전국 첫 추진… 472억 투입

충남 청양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청양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시행계획이 지난주 충청남도 고시를 통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벼농사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해 논에서도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청양군 장평면과 청남면 일원 10개 리로, 총사업비 472억 4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구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다.

/청양(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북도,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박차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경북 로케이션 팸투어’ 진행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지역 촬영지를 소개하고 실제 촬영 유치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경북도와 진흥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안동그랜드호텔과 안동·영주 일원에서 ‘2026 경북 로케이션 팸투어 - 촬영은 경북에서!’를 개최했다. 제작사와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 열린 촬영지 제안 상담에서는 영화 ‘수기안도 이야기(가제)’, MBC 드라마 ‘효녀구복이’, tvN 드라마 ‘해오름달 열이레’ 등 6편의 제작사가 작품 내용과 촬영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작품에 맞는 촬영지를 소개하고 행정 지원과 촬영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사전 신청한 10편 이상의 작품에 대해

서도 제작사와 시·군 간 1:1 촬영 상담을 진행했다. 인플루언서 30여 명은 촬영지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16일에는 제작사 관계자들이 안동 군자마을과 해상촬영장, 월영교 일원을 방문해 사극촬영지와 야간경관 등 작품 배경으로 활용할 공간을 살폈다.

경북도와 진흥원은 2020년부터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영상콘텐츠 37편을 지원했으며, 촬영 제작비 45억원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됐다. 지난해 팸투어에 참여한 KBS2 ‘문무’와 tvN ‘오작한 연애’ 등은 경주·안동·문경·예천에서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팸투어를 통해 소개한 작품들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며 “촬영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경북에서 촬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